테마칼럼 | 남도의 재발견 | 도시와 삶 | 건강과 생활 | 광주에 살면서

흐르는 강물처럼

최명순

"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켜주기 위한 일,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런 보람을 진작 느꼈더라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좀 더 일찍 깨우쳤더라면 지금 보다는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

'흐르는 강물처럼'은 브래드 피트 주연의 추억 같은 잔잔한 영화 제목으로, 흐르는 강물을 배경으로 허공을 가로지르는 플라잉 낚시를 하는 화보로 우리에겐 친숙하다.

그 친숙함 때문이었을까… 여행길에 잠시 들른 친구가 건네 준 책의 제목 '흐르는 강물처럼'을 보는 순간 대뜸 호감이 갔으며, 거기에 더하여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였는데, 그건 순전히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 탓이다.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이었는데, 50이 넘어 굳을 대로 굳어진 머리로 도저히 해낼 것 같지도 않고, 자신도 없는 상황에서 접한 글이 '연금술사'에서 본 두 줄의 문장이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데, 해 보지도 않고 내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 말에 힘입어 없는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학기 내에 무사히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흐르는 강물처럼'은 자신의 일상과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일화들을 작가의 섬세한 눈과 인간 사랑에 근원을 둔 따스한 마음으로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읽어내어 삶의 비결을 속삭이는 듯한 글들로 담아냈다.

무엇보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연대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단문형식으로 짧게 써 내려간 산문집이라 시간의 짬을 이용해 부담없이 읽기에 편할 뿐 아니라, 읽고 있는 내내 뭔가 인생살이에 있어 한 가닥 비결을 전수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어느 독자는 코엘료의 책은 가슴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진정으로 다가온다고 했던데, 정말 자연스레 가슴이 따뜻해지고, 삶의 강폭이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 어쩌면 삶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긴장을 늦추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요즈음 나는 30여 년을 근무해 온 회사에서 새삼스럽게 내가 해 왔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신종플루'라고 불리는 전염병 덕이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한바탕 열병을 앓고 있는 즈음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신종플루에 걸릴까 걱정하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타미플루의 가격도 미국의 187달러(약 23만원)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3만5천원에 불과하다. 또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1.8회(2005년)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횟수 6.8회보다 많다(OECD Health Data, 2009).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보다 진료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세계적이고,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을 뿐 아니라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거다.

이 모든 것이 건강보험 초창기부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정책에 협조하고, 국민 건강을 보살펴온 의약계의 헌신적인 노력에 더하여 국민과 정부, 의료계 간의 제3섹터(the third sector)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하여 의·약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진료인지, 또 비용 효과적인 진료를 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빈틈없이 꼼꼼하게 잘 관리해 온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생업(生業)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데, 뒤 늦게나마 나 자신의 삶과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우리 국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 한가운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켜주기 위한 일, 좋은 일이며,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런 보람을 진작 느꼈더라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좀 더 일찍 깨우쳤더라면 지금 보다는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책이 주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에 나 자신을 실어 보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지역 관광인프라 혁신적 개선 서둘러야

올해는 광주·전남지역 관광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해다.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와 F1대회가 개최되고, 이어 2012년 여수엑스포,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세계적인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5년 내에 5개의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잇단 국제행사에 1천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에만 광엑스포 130만명, F1대회 20만명 등 150만명이 광주·전남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관광 인프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광주·전남은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고 재주만 부리는 곰' 신세가 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역 관광기반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고사하고 관광객 유치의 가장 기본인 숙박시설만 해도 일시에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업소조차 전무하다. 이런 숙박시설로는 관광객 유치는 커녕 국제대회 자체도 치를 수 없다. 그렇다고 관광객이 지역 내에서 일정기간 머물면서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나 부가가치 창출, 외화 획득 면에서 다른 산업보다 성장성이 높은 미래성장동력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국제규모의 행사를 잇달아 유치해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 같은 호기(好機)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민 모두가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숙박시설을 대폭 늘리고 편리한 쇼핑환경 구축 및 음식 서비스 개선, 안전체계 확보 등 관광 인프라의 혁신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 못지않게 돈을 쓰는 관광으로 유인하는 게 중요하다.

일방적 법 개정, 교육자치 훼손 우려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됐던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통일시키고, 다음 선거부터는 아예 폐지시켰다. 교육의원 선거는 올해만 직선으로 실시되고, 2014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나 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교육의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2014년부터 정당 공천을 받은 광역의원들이 교육의원을 대신하게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교육의원제가 광역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출범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원제 폐지는 정당의 입김이 교육자치에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게 돼 또 다른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의원을 이번 선거만 직선으로 뽑기로 한 점도 정치적 타협에 따른 기형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법이 개정되면 4년후 부터는 교육경력이 전무하더라도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교육계 수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정당공천제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과거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에 교육경력을 요구했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현실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서는 중립성이나 전문성,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교육과 관련된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교육이 정치의 거센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만큼은 당리당략에 의한 접근을 철저히 배제해야 마땅하다.

종교칼럼

정세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보았다. 영화가 끝나고 밖을 나오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밤의 도시는 휘황찬란한 조명들로 낮보다 더 밝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눈부신 네온싸인을 보며 걷는 나도 어느새 밤의 도시에 익숙해져 간다. 요란한 조명은 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들뜨게 하고 도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흡수하며 환락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듯하다.

옆의 사람들도 분주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무엇을 위해 바쁜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 목적지가 환락의 세상이든 아늑한 가정이든 모두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변화에 민감하다. 과거 4,000년의 변화보다 현대의 40년의 변화가 더 빠르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은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평가받는다. 더 넓은 아파트, 남보다 높은 연봉과 지위를 갈망한다.

이제는 배고픔과 힘없음의 어려움이 아니라 남보다 많이 가지고 편히 살려는 인간의 욕심이 점점 자연을 병들게 하고 망치고 있다.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의 문명이 망가지고 결국 인간이 망가진다. 인간을 위한 문명이 인간을 해치는 문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급변하는 변화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 추구해야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쉼없이 변화한다. 엊그제가 바로 겨울인 듯했는데 벌써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린다. 절기상으로도 입춘을 지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 경칩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듯 사시가 바뀌지만 사시가 순환하는 진리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 우주도 생겨나고(성), 존재하고(주), 허물어지고(괴), 없어지는(공) 변화를 하고 있지만 성주괴공의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진리의 품안에서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한편에 치우친 우를 범하지 않으며, 자연의 품안에서 삼라만상과 공존하는 문명이 이뤄져서 4,000년의 연속을 40년의 불연속으로 치닫는 부작용을 범하지 않고 자연과 문명이 자기순환을 하며 양쪽 모두의 생명력이 유지될 것이다.

일본 전국시대 천하를 통일한 토요데미 히데요시는 통일 후에도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산사를 찾아 스님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스님은 대답 대신 차를 따르던 잔에 녹차가 넘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녹차 물을 따르고 있다. 히데요시는 스님 차가 넘칩니다. 라고 말을 건네지만 스님은 계속 잔에 차를 따른다. 찻잔에 차가 넘치는 모습을 지켜 본 히데요시는 알겠습니다. 하고 스님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뜬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찻잔이 작으면 차가 넘친다. 우주를 다 포함할 찻잔을 만드는 것 그것은 마음의 국량을 키워 우주와 찻잔이 합일한 세계를 깨닫는 것이다.

원불교를 창립한 소태산 대종사는 "여의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로 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주니라."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변화에 나의 행복이 좌우되는 현대인의 생활을 경계하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 사무국장〉

기고

박영선

막걸리, 날개를 달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술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생활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집집마다 술을 빚어 농사의 고단함을 잊고 관혼상제에 손님을 대접하는 중요한 음식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 360여 종이 넘었던 우리 술은 일제 강점기와 1909년 주세제도 도입으로 허가없이 집에서 술을 빚을 수 없게 되었고, 해방 후에는 식량부족으로 양곡을 술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등 술은 규제 위주 정책의 대상으로 우리 술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막걸리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한 '2009년 10대 히트상품'선정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막걸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 시에서도 울금 막걸리로 햅쌀 막걸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좋아 대형유통업체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성과를 거둬 울금 막걸리의 생산량이 60% 증가되었다. 또한, 북구 청풍동에 소재한 '청풍 동동주'는 2008년 농민주 제조허가를 받아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쌀로 술을 빚어 판매하고 있는데 술 맛이 좋아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받고 있다.

우리 술 산업화를 위하여 지난해 8월 말 개최되었던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술 산업이 세원관리를 위한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된 것을 육성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주조용 곡류 품종 및 재배방법 연구, 누룩 연구 등 술 산업 R&D 강화, 전문인력 양성, 성분 및 원산지 표시제 실시, 품질인증제 확대를 통한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 우리 술의 다양성 회복, 해외시장 개척활동으로 우리 술의 세계화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작년 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통주 대중화 및 우리 술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09 햅쌀 막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고조시켜 다시금 막걸리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고 '막걸리 누보'가 등장해 와인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현재 시중에서 쌀 10kg은 2만원 선에 팔리고 있다. 이 쌀을 활용해 밥으로 만들면 10만원, 떡으로 만들면 12만 5천원, 증류주로 만들면 무려 21만3천원의 부가가치를 갖게 된다고 한다.

쌀 소비량 감소로 쌀 재고 문제가 정부의 큰 걱정거리로 되어있는 현실에서 고급전통주를 빚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상품으로 팔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쌀 소비촉진 방안이 어디 있겠는가?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화와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수 천년 조상의 멋과 맛이 그윽이 녹아있는 우리 술을 육성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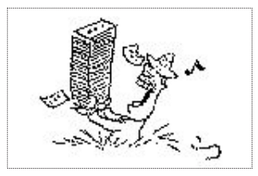
우리 시에서도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고유의 우리 술 복원, 주조용 쌀 계약재배, 술 제조방법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이번 설에는 전통 우리 술로 차례를 지내고 막걸리 한 잔으로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

〈광주시 농산유통과장〉

無等鼓

억대 부농



봉급생활자의 꿈은 고액 연봉이다. 돈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고 하나 여전히 연봉 1억 원은 성공한 직장인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최근 연공서열형 급여구조가 깨지고 상당수 기업이 연봉제를 채택하면서 억대 연봉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19만4천939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1천404만5천580명)의 1.4%를 차지했다. 10억 원을 넘는 '슈퍼 샐러리맨'도 1천124명에 이른다.

샐러리맨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억대가 넘는 소득을 일구는 농부들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전남의 농가는 지난 2008년 990명에 비해 448명(45%)이 증가한 1천438가구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농가도 6가구로 집계됐다.

전남도와 각 시·군들이 '억대 부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나주시는 2012년까지 '1억농 CEO' 1천 명 만들기에 나섰으며, 강진군도 억대 농민 200명을 육성하는 '부농만들기 2010-200 프로젝트'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억대 부농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성공을 일구어 내고 농업도 이제는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가 절반이 넘고 식량작물이나 시설채소로 억대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전남이 전통적인 농도이면서도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타지역과 비교해서도 초라하기 그지없다. 2008년 말 기준 충남에서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농은 1천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민도 18명으로 조사됐다. 경남 함양군은 올해 억대 부농 500 농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각종 지원책을 통해 규모의 영농화를 꾀하는 게 급선무다. 전남의 전체 농가수 18만6천호와 비교해도 1천438호는 턱없이 적지 않은가.

/고경석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호프집 안주 재탕 '충격'… 전염병 옮길수도

며칠 전 시사 고발프로그램을 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문으로 듣던 호프집의 과일안주 재탕현장이 적나라하게 나왔다.

TV를 보니 썰어놓은 과일의 변색을 막기 위해 사과를 설탕물에 담가 두는가 하면, 재사용할 것을 대비해 과일안주로 나갈 때부터 화채용으로 손질해 두는 곳도 있었다. 또 과일안주뿐만 아니라 마른안주, 감자튀김, 양념 치킨 등 다양한 안주류와 심지어 맥주까지 재탕하는 곳도 있었다. 술을 마시는 소비자들은 어떤 병균이 옮아 전염병을 얻을지 모르는 일이다.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정말 크게 벌받아야 한다.

▲나혜성·광주시 서구 서창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